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해설시나리오(학생)

1. 기획목적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근대역사의 일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 외세의 침탈에 저항했던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상자 : 학급 단위, 학생(25~100명)
- 대상지 : 충북 보은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 준비물 : 필기도구
- 계절 : 봄, 여름, 가을, 겨울
- 소요시간 : 약 1시간
- 탐방로 길이: 약 500미터

3. 프로그램 시나리오

1) 해설자 소개 및 참가자들 간의 인사



안녕하세요?

(날씨, 사는 곳 등을 자연스럽게 물으면서 학생들의 분위기를 파악한다.)

저는 속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 000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곳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 도착했는데요. 이

곳은 약 12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신분제도의 폐단과 외세의 침탈에 저항했던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먼저, 동학(東學)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본 후 선생님과 함께 이곳 공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웠던 선조들을 추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학이란?

여러분 “**동학**”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전봉준, 농두장군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네 동학은 간단히 말해 **서학**(西學: 조선후기 중국을 통해 도입된 서양 학술서적 및 서양의 과학기술문물로써 좁은 의미로는 천주교를 의미한다.)의 반대입니다. 너무 쉽나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을 동양(東洋)이라고 하고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의 지역을 서양(西洋)이라고 하듯이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중국을 통해 전래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강대국)의 발달된 기술과 문물들을 “서학”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서학에는 자명종, 천리경(망원경) 등의 새로운 도구들 외에도 발달된 천문학, 지리학과 같은 학문도 있었으며, 특히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가톨릭)**는 일반적으로 서학 자체를 천주교라고 부를 만큼 조선후기 우리 선조들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서학이 당시 선조들에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고, 생활모습을 변화시킨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엄격한 유교적 신분질서(사농공상, 반상)가 고착화된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은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핍박받던 일반 백성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 서학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외에도 하나님 외에도 **모든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교리 때문에 기존의 백성들의 생활상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던 유, 불, 선(도)교 신앙을 모두 배척하는 모습도 있어 기존 전통적인 생활(제사, 효도 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거부감도 가져다주었습니다. (아울러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과 그 이유를 물어본다.)

또한 천주교를 전래했던 서구의 나라들이 조선과 청나라(중국), 일본 등에 무력으로 통상(무역)을 요구하고 **침탈의 욕심**을 내보이게 됨으로써 서구 및 천주교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지게 된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도 경주에서 수운 최제우라는 사람이 서학(천주교)의 평등 사상은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유, 불, 선교의 장점들을 혼합하여 당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동학(東學)입니다. 이러한 동학은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

부 몰락한 양반 중에서도 동학에 입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3) 동학농민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요?(동학농민혁명 기념물 앞)



앞에 보이는 기념물들은 동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탐관오리의 극심한 수탈입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할 당시에는 세도정치라고 해서 일부 양반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이 권력을 독점한 양반가문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을 일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높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수령(사또)들은 자신이 관직을 샀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고을의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빼돌리기도 했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백골징포 白骨徵布) 심지어는 **젓먹이 아이에게도 세금을 매기기도 했답니다.**(황구첨정 黃口簽丁)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했다는 것인데 당시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탐관오리들의 극심한 수탈과 학정으로 백성들이 매우 힘들어지고 괴로워하던 중에 전라도 고부에서 조병갑이라는 악독한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동원하여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짓고는 다시 그 저수지를 지었던 백성들에게 저수지의 물을 쓸 때마다 물세(수세)를 받게 하자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당시 고부지역의 동학지도자(접주)였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고부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은 저수지의 물을 다시 돈을 내고 사용하게 한다면 매우 화가 나겠지요?

이렇게 화가 난 동학농민군이 연달아 승리하면서 한양으로 향하자 놀란 왕과 신하들은 외세인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고학년의 경우 “텐진조약”을 설명한다.)

이에 동학농민군들을 외세의 침입을 막고자 조선 정부(조정)과 **화해(전주화약)**를 하여 신분제 철폐, 탐관오리 처벌 등의 약속(폐정개혁안)을 받고 농민군을 일단 해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이유와 다시 동학농민군들이 봉기하여 치열한 항쟁을 벌였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이루지 못한 농민들의 꿈(대형책 조형물)



앞에서 기념물에 그려진 배를 보았나요? (교보재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이양선을 보여주기도 한다.) 앞의 기념물에서 봤던 증기선이나 서양의 범선들을 당시 우리 선조들은 **이양선(異樣船: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으로 주로 서구의 범선을 가리킴.)**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뜻은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약 120년 전에는 서구의 선진국들이 우리의 가까운 바다에 이러한 이양선을 보내서 겁을 주며 통상을 요구하였고, 특히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가까운 우리 조선을 침탈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먼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외세, 그중에서도 **일본의 침탈 욕심**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의 조정이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자 일본 역시 그들의 군대를 조선에 보냈는데요. 동학농민군과 조선 정부가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양에 계

속해서 군대를 머물게 하면서 조선 정부에 여러 가지 내정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일본은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세력의 견제를 막고 조선정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여 조선침탈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왕이 기거하는 궁궐인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를 다른 나라의 군대가 점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치욕스러운 일 때문에 동학농민군들은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커다란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경복궁 점령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본다.) 이렇게 다시 일어난 농민군들은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향했는데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일본군의 신식 무기를 당해내지 못하고 연달아 패하게 됩니다.

당시 동학농민군들을 진압하기 위해 한양으로부터 출발한 일본군들은 서양에서 받아들인 기관총, 소총들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 창, 심지어는 죽창을 가지고 싸웠던 농민군들은 관군 및 일본군들에게 많은 희생을 치르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농민군들의 패배는 무기의 차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관군과 일본군은 전문적인 전투훈련을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에 비해 농민군들은 숫자는 많았으나 제대로 된 훈련 한번 받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협동심을 길러야 하는지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학급도 협동심을 기른다면 운동회나 학급대항 대회에 나갔을 때 보다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달아 패한 농민군들은 결국 총대장이었던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 등 여러 지도자들이 잇달아 체포되면서 힘을 잃고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새야새야 파랑새야(새야새야 파랑새야 노래비)



여기서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민요를 하나 배워볼까요? 자 따라 해보세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
- 작자미상

이 민요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사의 내용 중 파랑새는 “일본군”을, 녹두꽃, 밭은 “전봉준 장군”을, 그리고 청포장수는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일본군이 푸른색 군복을 입어 파랑새는 일본군을 뜻하며, 전봉준이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 녹두장군이라 불리었던 점을 보아 녹두 밭은 전봉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른들이 키가 작은 친구들을 보고 “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전봉준 장군은 이 콩보다도 더 작은 녹두만하다고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이지요. 그래서 녹두밭이나 녹두꽃은 녹두장군 전봉준을 상징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청포장수는 백성을 상징한답니다. 청포장수가 파는 청포는 녹두로 쏘묵을 파는 장사꾼인데 녹두꽃이 떨어져서 녹두열매가 열리지 못하면 녹두로 쏘묵(청포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울고 간다는 것입니다. 즉,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어 동학농민혁명이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많은 백성들이 슬퍼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노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더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6) 빛의 계단



저 멀리 기념탑까지 이어져있는 돌계단들이 보이나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이 빛의 계단을 오르면서 계단의 양 옆에 전시된 동학농민군들의 역사적 장소, 유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계단을 한걸음 한 걸음씩 올라볼까요?

● 주요 사진

(1) 해주성 사진



여러분 혹시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나온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은식 선생님과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역시 가장 유명하신 분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운동에 앞장서셨던 김구 선생님 또한 한 사람의 동학교도였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님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지금은 북한지역인 황해도 해주에서 동학농민군의 일원으로써 해주성 공격에 앞장서셨고(선봉), 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되자 그 원한을 갚고자 복수를 실행하다가 체포되어 옥에 갇히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김구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젊은 시절부터 아주 오래도록 일본의 침탈에 저항하셨던 것이죠.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에 보면

“내가 공손히 절을 한즉 그도 공손히 맞절을 하기로 나는 황공하여 내 성명과 문벌을 (상농임을) 말하고 내가 비록 성관(成冠)을 하였더라도 양반댁 서방님인 주인의 맞절을 받을 수 없거늘, 하물며 편발 아이에게 이런 대우가 과도한 것을 말하였다. 그랬더니 선비는 감동한 빛을 보이면서, 그는 동학도인이라 선생의 훈계를 지켜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고 누구

나 평등으로 대접하는 것이니 미안해 할 것 없다고 말하고 내가 찾아온 뜻을 물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별세계(別世界)에 온 것 같았다. ...(후략)”

[※본인에 맞게 본 내용을 각색, 축약하여 설명할 것.]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동학의 평등사상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학급에서 반장이나 부반장이 지나갈 때마다 양 옆으로 물러서서 옆드려 머리를 조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겠죠? 당시 김구 선생님도 아마 여러분과 마찬가지로였을 거랍니다.

(2) 우금티 사진



이 사진은 공주 우금티의 사진입니다. 앞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일본군의 신식무기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패배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곳이 바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가장 큰 패배를 당했던 곳입니다.

이 전투에서 약 40~50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약 10,000명이던 농민군이 500여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패배한 농민군들은 이후 연달아 패배하며 해산했고, 마지막으로 해산, 진압당한 곳들 중 한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서있는 이곳 “복실마을”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음 장소에 있는 사진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지요.

(3) 취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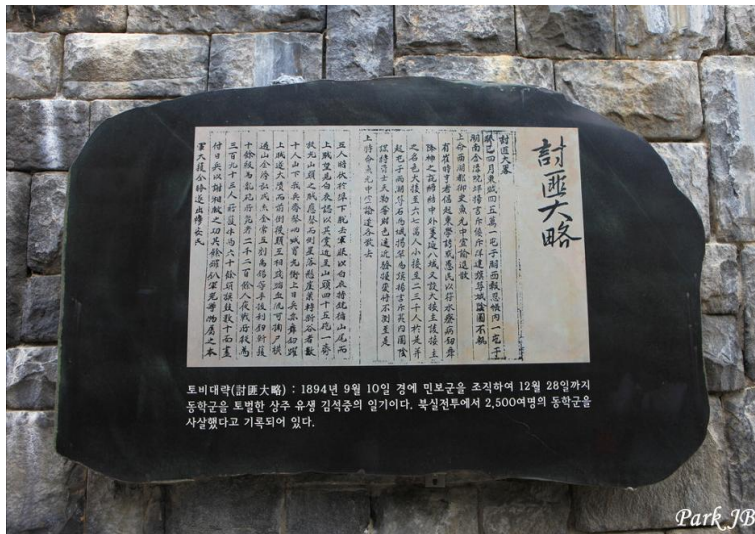
앞의 옛 문서 사진은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893년 이곳 보은에서 열린 보은취회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은 “취어”라는 문서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당시 보은군수나 보은관아의 관리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문서들의 내용은 주로 동학농민들이 취회를 하는 과정이나 그 상세한 내용 등을 정탐한 내용인데요. 현재의 문서들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참가인원, 참가자들의 출신 등)

이 보은취회에서 동학농민들은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에 대한 교조신원운동을 벌였는데요. 교조신원운동이란 억울하게 처형된 동학 창시자 최제우의 죄를 사면하고 동학의 포교를 허락할 것을 주장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누구나 자유롭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을 선택하여 믿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유교(학) 외에 어떤 종교나 학문이 허락되지 않았답니다.

또한 이곳 보은취회에서 처음으로 동학농민들이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일본과 서구의 강대한 나라들의 침탈을 막기 위해 의병을 일으킴.)”이라는 구호와 함께 외세의 침탈을 배척하는 정치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동학농민혁명의 호국정신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4) 토비대략



토비대략(討匪大略) : 1894년 9월 10일 경에 민보군을 조직하여 12월 28일까지 동학군을 토벌한 상주 유생 김석중의 일기이다. 북실전투에서 2,500여명의 동학군을 사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앞에 사진에 보이는 문서는 “토비대략(討匪大略)”이라는 문서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농민군들은 일본군과 조선조정의 관군 외에도 각 지역의 유학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민보군(民堡軍)과도 싸워야했는데요. 민보군은 당시 높은(상위)신분인 양반층들을 구성하고 있던 각 지역의 유학자들이 모든 사람의 평등을 주장하는 동학농민들의 혁명을 탄압하고자 만든 양반군대였습니다.

이 토비대략은 경상도 상주에서 민보군을 조직하고 활동했던 김석중이라는 양반이 쓴 동학농민군 토벌기록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곳 보은 북실마을에서 김석중이 이끄는 민보군이 일본군, 관군과 함께 약 2,600여명의 동학농민군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곳 북실전투를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열기는 사그라지고 말았지만 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져 항일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말이죠.

7) 기념탑



이제 기념탑 앞에 도착했네요. 꽤 힘들죠? 여러분 한손에는 죽창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희생된 동료를 끌어안고 있는 저 농민군들의 동상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동학농민혁명의 참가자들과 같은 많은 **호국선열들이 희생**하고 저항한 결과물입니다. 사실 이 분들은 먼 옛 조상들이 아닌 여러분들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뻘의 생각보다 가까운 분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잠시 앞의 동상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당시 죽창을 들고 기관총을 쏘는 일본군에게 진격하던 농민군들을...

얼마나 무서웠을까? ... 얼마나 두려웠을까? ... 혹시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이 눈앞에 어른거리지는 않았을까? ,..

이제 지금부터는 많은 호국선열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며 그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동 묵념..... (잠시 뒤) 바로

8) 하늘길



이제 다시 선생님과 함께 아래에 보이는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하늘길을 따라서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길을 내려가면서 앞에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주변에는 많은 야생화들도 피어있으니 사진도 찍고 그 향기를 깊게 들이 마시면서 가도록 해요.

● 주요 안내판

(1) 보은과 동학농민혁명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과 함께 배웠듯이 보은은 이곳에서 벌어진 보은취회를 통해 처음으로 외세의 침탈을 막고자 의병을 일으킨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 동학농

민혁명의 기틀을 다진 곳이고,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곳들 중 한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사람씩 이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내용들 중 기억에 남거나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점들을 하나씩 이야기 해볼까요? 혹시 먼저 말해볼 사람 있나요?(나서는 학생이 없을 경우 임의로 몇몇 학생들을 지목하기도 한다.)

(2) 대접주 명단



앞에 보이는 명단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활약했던 각 지역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동학교단의 조직은 매우 커서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렇게 각 지역별로 **포(包)**나 **접(接)**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대접주라는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혹시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기독교에서도 권사님이나 집사님, 목사님들이 있듯이 이렇게 동학도 비슷한 직책이 있었답니다.

여기서도 앞서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같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항일운동을 하셨던 유명한 독립운동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명단을 같이 살펴본다.)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찾아낸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명단에 기록된 총의대접주 **손병희 선생님**입니다. 손병희 선생님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분으로 참가하셨다가 체포되어서 모진 감옥생활 끝에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손병희 선생님은 이러한 항일운동 외에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농민군들을 이끌고 많은 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동학 3대 교조가 되어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님 하면 동학도 같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3) 보은관아에 전달된 통고문



이 안내판은 1983년 보은취회 당시 동학농민군들이 보은관아에 보낸 통고문입니다. 안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힘과 정성을 다해 어버이에 효도하다...(후략)**”, “**(전략)... 충효의 절개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등의 문장을 통해서 동학이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 시 하였음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임진(壬辰), 병인(丙寅)의 치욕을...(후략)**”, “**우리들 수만이 죽기로써 힘을 합하여 소파왜양하고...(후략)**”라는 문장에서 외세의 침탈을 배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볼까요? 앞서 말한 부분 중에서 임진과 병인의 치욕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정답을 맞추는 학생에게 기념품을 상품으로 주기도 한다.) 네 정답을 맞힌 친구의 말처럼 임진은 “임진왜란”을 병인은 “병인양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우리가 외세에게 크게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지요.

또한 “소파왜양”이라는 말은 앞서 배운 “척왜양”과 비슷한 뜻으로 일본과 서구의 강대한 나라들의 침탈을 막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곳을 돌아보며 우리가 힘이 약하면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커서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어 다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 받거나 침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선생님과 약속할 수 있겠죠?

※ 기타 장승, 광장, 국궁장, 폭포 등은 개별 활용 요망

